



2013 5

마산고등학교 제21회 동창회

통권 제341호

발행 : 우용태 010-9301-2223 / 총무 : 김석백 011-488-9871

편집:제갈선광 010-5146-4925 / mail : chegal44@gmail.com



큰바위 얼굴

박소학

“일마! 지금 오데가노?”

길 건너 친구를 소리쳐 부르는 정 많은 친구. 목마름을 참고 뒤에 서있던 참을성 많은 친구. 물만 먹고도 앞새를 튼튼히 키워 올리던 청백리 친구. 주름투성이 친구의 얼굴을 드러다 보고 “아, 나도 저만큼 늙었구나...”하고 뒤늦게 깨닫는 친구.



자신을 스스로 불태워 주위를 밝혀주던 촛불의 친구. 그리고 불러보아도 대답 없는 보고 싶은 얼굴. 이제는 古稀를 넘기고 노을빛을 조용히 바라보는군.

이것 또한 지나가고, 티끌처럼 흩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평생 시집을 가지 않을 것 같던 박근혜 공주가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이제 女王이 되었구나.

이번에 새로 탄생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지지한 추기경들의 죄를 용서하소서.”했다.

13세기의 아시시의 聖 프란치스코는 새들과 말하고, 늑대들을 모아놓고 설교했다.

만물의 本性品은 같은 것, 먼저 보여주면 서로 통하는 것.

밤하늘의 별빛을 본다. 지금 보고 있는 어떤 별빛은 몇 억 년 전의 것.

영국의 천재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빛까지도 받아들이는 Black Hole 이 있다면 저 반대편에는 새로운 별을 탄생시키는 White Hole이 있다” 는 이론을 폈다.

色卽是空 空卽是色. 스웨덴 왕립노벨심사위원들은 이 이론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는 神의 입자(힉스입자)의 존재를 확인하였다고 한다. 창조주의 옆모습을 훑쳐보다가 그 손을 본 것이다.

빈대코 김광웅 천재는 저 멀리 빛 속에 있지만, 헨조카 조용민 석좌교수는 자석의 N,S극을 각각 만드는 따로 떨어져 있는 입자를 지금 우주 속에서 찾고 있다. 곧 거대 강입자 가속기에서 찾아낼 것이다.

죽기 전에 노벨물리학상을 들고 있는 아이슈타인 두상을 닮은 헨조카의 영광스런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손꼽아 기다리는 동창회날!

앞에 있는 친구가 술잔을 들어 올리면 마주보는 친구는 미소를 짓는구나.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天國이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신 온통 빛으로 둘러싸인 깊고 깊은 빛의 심연께서는 오늘 이렇게 모인, 있는 친구나 없는 친구를 가리지 마시고 가나흔인잔치에서 물에서 빛은 포도주로 같이 한잔 하시면 어떠하시올는지……. *

정정합니다

4월달에 게재되었던 서울좋은치과위원의 예약전화번호는 02-577-2807로 정정합니다.

임플란트 | 신경치료 | 심미보철 | 치아미백 | 충치치료
잇몸치료 | 교정치료 | 사랑니발치

서울 좋은치과 의원

원장 치의학박사 이 정 호(이영부 장남)

예약 : 02-577-2807

서울, 도곡동 957-11
극동스타클래스 3층
(양재역 4번출구)



총무가 오후5시30분에 거림식당에 도착하니 김순택, 광영식, 박소학 동문들이 이미 도착하여 미처 식당에서 안주 거리가 준비가 안 돼 손가락을 빨고 맥주 한잔씩 들이키고 있었다.

6시30분에 지방방송을 중지하고 월례회를 개최하여 먼저 회장의 인사와 함께 쉰원기예공연행사와 제47차 총동창회정기총회 및 장학금수여식행사, 기우회소식 등을 전하고 추가로 최광수 동문의 자제 결혼식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준 고마움에 금20만원을 기금으로 찬조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지난 4월15일 15:00에 산호동 사보이호텔에서 광진 큰스님 이복렬 동문의 고회연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 축하하여 주었다는 소식과 구해룡 동문이 직접 다음달 5. 15~5. 16에 부산·서울 동문 초청산행행사에 대하여 자세히 추가설명 후 월례회 행사를 끝낸다.

총무가 금년에 흑자살림을 계획하여 식대 50만 원 이상 되는 장소를 가급적 피하다보니 저녁수라상이 별로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여태까지 연회비 독촉을 한 번도 안했는데 슬금슬금 평소출석동문 1/3이나 완납하여 주시니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좋은 일만 생기도록 본부 출석동문들 모두에게 기도드립니다.

참석자

강수성 광영식 구해룡 김기정 김기태 김기현 김방태 김순택 김선규 김석백 김성규 김순철 김영 김용인 김정수 김태욱 박소학 박영환 배종길 변재국 변재웅 배복기 손기홍 손동개 신창한 우용태 이무일 이복렬 이성환 이영부 이종섭 이종량 장영의 장정치 전기용 정안정 정의건 정정용 정창봉 제갈선광 조남규 지해경 최광수 황희생 이상43명

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2013년 4월		
수 입			지 출		
적 요	금 액	비 고	적 요	금 액	비 고
회비	1,900,000	강수성 김기태 김성규 김순택 김영 배종길 변재웅 이복렬 정안정 각15만원	식대	496,000	거림식당
			회보	210,000	회보인쇄비
				56,430	발송비
		경조사	200,000	신대순 최광수 훈가 각10만원	
		수당	150,000	총무	
광고	30,000	이영부			
찬조	200,000	최광수			
수입계	2,130,000		지출계	1,112,430	
전월이월	5,062,457		차기이월	6,029,277	
합 계	7,141,707		합 계	7,141,707	

본부동창회 계좌 : 김석백(국민은행) 651401-04-343779

- ♣ **황희생 동문**
동문께서 따님 진영 양이 오는 5월11일(토) 결혼식을 갖습니다.
- ♣ **동문바둑대회**
지난 4월7일, 동창회사무실에서 마교21회 기후회의 제13회 바둑대회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년말에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祝結婚

황희생 동문
차명자 여사 의 막내 진영 양

새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해 드립니다.

일시 : 5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창원교직원공제회관 3층
웨딩홀(055-275-5001)



- ♣ **총동창회 정기총회**
지난 4월13일, 모교강당에서 총동창회 제47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안건 중에 현 장학기금 23억 잔

액을 30억원으로 증액 출연키로 가결하여출연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모교역사관 옆에 명단을 부착하게 됩니다.

- ◎ 일천만원 이상 출연자
공헌록(대) / 사진
 - ◎ 오백만원 이상 출연자
공헌록(대)
 - ◎ 삼백만원 이상 출연자
공헌록(중)
 - ◎ 일백만원 이상 출연자
공헌록(소)
- (문의사항은 055-242-7871로)

2013년도 전국동문바둑대회안내

일시 : 2013년 6월 2일(일) 오전 10:00
장소 : 정석기원(불종거리)
대회장 : 동창회장 국회의원 안용준
주관 : 무악기우회(회장 박필근)

바둑에 관심있는 동문은 누구든지 참석할수있으며 1급에서9급까지 기력에 따라 甲.乙.丙 3개조로 진행하며, 참가비는 1만원으로 당일 참석자 전원에게는 푸짐한 기념품 증정이 있으니 많은 동문의 참석을 바랍니다.

원고접수 E-mail : chegal44@gmail.com



시샘하던 차가운 바람조차 가슴가득 안겨드는 화창한 봄날 21일, 이의승 회장 주관의 첫 모임이 부산에서 가장 젊음과 낭만의 거리로 손꼽히는 장전동 부산대학로에 위치한 ‘가거도’ 횡집에서 봄 도다리와 밀치를 주안상으로 하여 25명이 반가운 자리를 함께했다.

먼저 이의승 회장이 첫 인사로 “부족함이 있더라도 모두가 즐거움이 함께할 수 있는 동기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면서 많은 협조를 부탁했다.

총무 역시 동기회 심부름에 게을리 하지 않겠다면서 준비된<재부 마고 21기 연중 월례회 Road Map> 자료로 회의를 진행했다.

매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입맛을 즐기자는데 공감을 했고 뭐니 해도 인생 후반 20년의 연장전 출발점이 되는 칠순의 세월을 동기의 끈끈한 우정으로 힘차게 다지자는 의미에서 11월에 일본으로 ‘장수여행’을 떠날 계획을 박수로 확정했다. 만남과 기다림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건강한 나날이 필수 조건이기에 김대균, 김청조, 박진형 친구들의 빠른 쾌유와 함께 박진형의 부인께서도 하루 속히 건강을 되찾기를 기원했다.

그리고 지난 4월 8일부터 13일까지 시청 전시장에서 가진 ‘부산연륙서화회원전’을 가지면서 서예의 본질 추구에 매진하고 있는 이황구 친구에게 더 큰 발전을 기원하는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끝으로 5월 15~16일에 마산에서 주관하고 최진화 친구가 추진하게 될 서울·부산·마산 지리산 합동산행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하면서, 5월 모임은 22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재부총동창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후 별도 모임을 갖자면서 4월 월례회를 끝냈다.

참석자

강신평 권기욱 김덕조 김수곤 김수용 김준태 김지남 김효석 나길보 남원일 문호기 박용우 박진형 송길영 이강복 이의승 이장우 윤성업 정현경 조영민 조창식 조창제 천성태 최진화 황선치 이상25명

회보제작에 협찬해주신 재경 재부동창회에 감사합니다.
 각지역 신임회장단은
 2013년도 회보제작분담금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담금 내역 : 재경동창회 : 100만원
 재부동창회 : 60만원

편집인의 사진블로그 : <http://wing91.tistory.com>

제15차 합동산행안내

어언 8년째 접어들고 있는 합동산행의 올봄행사는, 첫날 지리산 삼신봉 등산과 둘째 날 황매산 철쭉구경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전국각지에서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만남의 기간 : 2013. 5. 15~ 16(1박2일)
- 1. 만남의 장소 : 대진고속도로 단성IC 통과 후 우측 공간
- 1. 만남의 시각 : 2013. 5. 15 12:00 정각
- 1. 참가신청 : 서울(서종성 010-2255-6223)
부산(최진화 010-2621-7582)
마산(구해룡 016-9567-6797)

웃짜코너 - 해외 Cartoon

EMPTY BOW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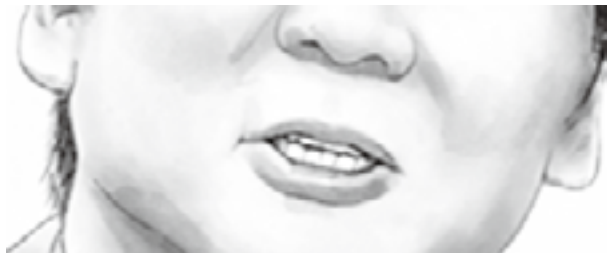
깡통

김정은의
뚜껑을 열면
그 안도 역시
빈 깡통입니다...

이거이
웃을 일입니까...?



NIGHTMARE



노원 병(丙)의 악몽

한동안 품었는데
다시 악몽을 꾸게 되네요.
아, 저 입술이.....

만 가드니 끝자락에 당도하니 드디어 관음폭포가 기다리고 계신다.

고대하던 바로 그 풍경이다. 엄청 큰 바위 밑에는 구멍이 군데군데 뚫려있고 폭포오른쪽 바위에는 커다란 구멍이 해골을 연상시켜 신비롭기도 하거니와 마치 미지의 세계에 떨어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높이7m의 쌍폭으로 바위벽에는 넓이10평가량의 관음굴이 있고 폭포위로 구름다리가 있어 볼수록 환상적이다. 지겹도록 눈요기를 하고 위에 있는 구름다리를 건너면 진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까 기대를 하며 시멘트계단을 오른다.

출렁이지 않는 연산구름다리를 건너면 바로 연산폭포를 만나는데 내연산12폭포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높이 30m로 학소대 바위벽을 타고 쏟아진다) 아래의 관음폭포 풍광이 너무 많이 각인 되어서 인지 이곳 연산폭포는 대충 눈요기로 끝을 낸다.

안내문에는 삼폭포 또는 상폭포라고도 하는데 이는 상생폭포를 1폭포, 관음폭포를 2폭포 또는 중폭이라 하고 연산폭포를 3폭 또는 상폭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1폭포인 상생폭포는 올라오면서 구경할 수 있지만 2폭 보현폭포, 3폭 삼보폭포, 4폭 잠룡폭포, 5폭 무풍폭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지나치기 때문에 상생폭포와 관음폭포 그리고 연산폭포만 뚜렷이 볼 수 있어 삼폭이라 할 수 있겠다. 8폭 은폭포, 9폭 복호1폭포, 10폭 복호2폭포, 11폭 실폭포, 12폭 시명폭포는 구경거리도 되지 않아 이쯤에서 발길을 돌린다.

내려오는 길에 보현암 뒷길로 1분만 오르면 갓부처를 뵈올 수 있는데, “갓부처님은 약사여래불로서 중생들의 질병치료와 수명연장 그리고 액난소멸과 의복과 음식 등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이며 사바세계의 고통은 많은 것을 원할수록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으니 단 한 가지 소원만 빌어 보는 것이 방편이라”하여 욕심은 여기에 다 내려놓고 소원을 빌어 보려니 도무지 한가지만 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축구처럼 빌지도 못하고 멀뚱히 쳐다만 보다가 내려놓은 욕심들을 다시 거두어 주워 담고는 돌아선다. 생각할수록 억울하지만 그 대신 관음폭포에 와서 다시 한참을 구경하고 간신이 마음을 달래어 내려오다 보니 어느새 보경사가 눈앞이다.

경내는 대충 둘러보고 300살이나 먹은 소나무에는 정신을 한없이 팔고 내려오니 사천왕이 눈알을 부라린다. 내가 뭘 잘못했나 경내에서 침 뱉은 일도 없고 담벼락에 오줌 눈 일도 없는데…….

주춤거리다가 아래를 보니 용하게 그동안 몰랐던 설명서가 눈에 들어온다. 남방증장천왕은 수미산 남쪽 유리타에 살고 있는 천왕으로서 자신의 위엄과 덕으로써 만물이 태어날 수 있는 덕을 베풀고 있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지키고 증장시키는 것이 바로 증장천왕의 역할이다. 석가모니가 입적할 때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출가인을 보호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하며 그 옆에는 동방지국천왕이다.(다음호에 이어짐)

12 포항 내연산 폭포 (3)

장정치

보경사 소개는 이쯤하고 우리는 가던 길 마저 가기로 하자. 보경사 입구에서 왼쪽 길로 들어서면 연산폭포까지 2.5km, 관음폭포는 2.2km, 문수암 2.0km, 그리고 보현암까지는 1.8km를 알려주는 팻말이 서 있다. 가다보면 왼쪽으로 빠지는 길은 극락암으로 향하는 길인데 우리는 극락 갈 마음이 별로 없어 망설임 없이 오른쪽의 폭포길로 방향을 잡는다. 길 오른쪽 배수로에는 맑은 물이 흐르지만 왼쪽의 계곡에는 물이 말라 앙상한 바위들만 한가롭게 놓고 있다. 조금 더 오르면 오른쪽 바위 밑에 내연산산왕대신신위께서 내다보시지만 눈길 한번 주고는 바삐 걸음을 옮긴다.

한참을 오르면 나무테크길이 아담하게 펼쳐지고 끝자락의 넓은 바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제야 계곡이 시원하고 산비탈에는 갈색나무들 사이로 틈틈이 서있는 질푸른 소나무가 한 폭의 산수화를 연출하며 그래서 인지 유난히 고고하게 보이기도 한다. 이어지는 오솔길에는 스텐으로 난간을 만들어 길이 정갈하더니 길은 점점 고도를 낮추어 어느새 계곡과 길을 함께한다 했는데 눈앞에는 벌써 제1폭포인 상생폭포가 펼쳐진다. 가까이에서 안내판을 보니 지금은 상생폭이란 명칭이 통용되고 있지만 쌍둥이 폭포란 의미의 쌍폭이란 명칭이 오래전부터 쓰였으며 1688년 5월에 내연산을 찾은 정지한(1625-1688)의 산중일기에 보면 사자쌍폭이라 적고 있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름그대로 똑같은 물줄기의 폭포가 쌍둥이처럼 나란히 의중계 내리고 있다.

다시 발길을 옮겨 폭포위쪽의 계단을 올라 폭포아래를 내려다보면 넓은 소가기를 죽인다. 조금 더 달리면 큰 바위가 대문처럼 버티고 있는데 여기가 보현폭포라고 하지만 폭포는 보이지 않는다. 다시 몇 발작 오르면 삼보폭포를 만나는데 원래 물길이 세 갈래여서 삼보폭포라 했는데 등산로에서는 보이지 않고 왼쪽 비탈을 내려 바위를 가로 지르면 얼핏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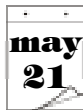
또 몇 분을 오르면 오른쪽으로 1분이면 보현암이 있다고 알려 주는데 내려올 때 들러 보기로 하고 지나쳐 돌계단길을 지나면 부드러운 나무테크길을 만나고 앞쪽 옆자락에는 높은 바위벽이 절경을 이루었고 나아갈수록 절경은 더해

7쪽으로 이어짐 -

2013년 5월 월례회 안내

월례회

일시 : 21일(화) 오후 6시30분
 장소 : 흥화식당(055-246-8852)
 남성동 대신증권 뒷골목



부인회

일시 : 21일(화) 12시 30분
 장소 : 하성이불(223-6160)

